

‘시험지 유출’ 고교, 감사 방해 논란

수업 중 고3 전체 설문조사에 “편파적 감사” 반발 교육청 “명백한 공무방해”... 유출 의혹 교사 고발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의 한 사립고에서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청의 감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청은 “명백한 공무 방해”라며 관련 조처를 예고한 가운데 시험지 유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학교 수학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기말고사 수학문제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K고에 이날 오후 1시께 특별감사 반원 20명을 파견

해 3학년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 반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작업은 오후 1시50분부터 20분 남짓 이어졌고, 감사반은 설문지를 취합해 오후 2시30분께 복귀할 계획이었다.

설문은 학교장의 동의를 구해 5교시 중간에 실시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한 이 학교 교사와 학생 등 10여 명이 학교를 빠져 나가려던 감사반원

들을 막아서면서 30분 가까이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길이 막힌 감사반원들은 발길을 돌려 이사장실 옆 학교운영위원회실로 옮겨 30여 분 간 학교 측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인 뒤 오후 3시5분께 학교를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감사자료 탈취나 이렇다할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설문 내용이 편파적이고, 설문 전 사전설명 과정에서 의도된 답을 얻어내려는 듯 한 쪽으로 치우친 발언들이 나와 공정한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엄연한 감사 방해이고, 황당할 따름”이라며 “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날 시험지 유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A교사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5일 치러진 기말고사 수학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 서술형 2문제 등 5문제(총점수 26점)가 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특정 동아리에 시험 한 달여 전 미리 배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학교 측의 거짓 해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인호 기자

국가보훈처 직무유기 등 공개서한 전달해 5·18 부상자회 혁신위

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12일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자체 업무 감사와 5.18 구속부상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국가보훈처 정문 앞에서 “5·18 적폐 세력 비호하는 보훈처장과 보훈차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호국 희생,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그 모든 가치를 전승, 함양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이다”며 “역사적 정통성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속 단체 및 그 회원들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직무 태만은 국가 공무의 태만을 넘어 국가보훈처 소속 비영리법인들의 불법과 탈법을 방조,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바, 혁신위원회는 보훈청장에게 면담 요청과 공개서한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집회를 마친 후 보훈처 소회의실로 이동해 보훈청 국장, 과장, 주분관, 등을 만나 면담을 한 뒤 “국가보훈처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보훈처 관계자는 “철저한 내부감사와 현지 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며 “불법·탈법·편법 등의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재외동포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한 독립만세! 100년 전 그날로 돌아가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범죄 예방’ 광주경찰, 취약지역 집중 점검

50대 남성의 모녀 성폭행 미수를 비롯해 혼자 사는 여성 귀갓길 추격 등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광주경찰이 위험요소 집중 점검과 함께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여성불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을 단계별로 재점검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을 개선한다.

여성안심구역은 1인가구 등이 많은 지역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

정·관리하는 구역으로 광주지역에는 총 17개소가 지정돼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이 출·퇴근에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 취약한 곳이며 총 67개 노선이 관리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1단계로 112신고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기존의 안심구역과 귀갓길 등을 중심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이어 지역관서에서 점검·판단해 재차 정밀진단한 뒤 환경개선이 시급한 순위를 정해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한다.

3단계에서는 각 경찰서가 진단한

내용과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하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단체 등과의 합동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민간 협업을 하기 위해 범죄예방진단팀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취약지에 대해 CCTV, 가로등, 반사경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흥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 한 40대 긴급체포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지인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오(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거리에서 흥기로 A(39)씨의 가슴을 찢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툰 뒤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1일 A씨를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박씨가 술자리에서 합의 중용하다 다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친구 17시간 감금·폭행 20대 2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친구를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감금·공갈 등)로 이모(20)·홍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후 2시35분까지 경기도 파주시와 광주 일대를 오간 차량과 광주 북구 모 원룸에서 A(20)씨를 1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A씨를 마구 때리고 운동복과 스마트폰 유심칩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을 무시하며 욕했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룸에서 와이파이가로 채팅업을 실행, 다른 친구에게 감금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으며, 이씨·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찬채 母女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

지난 10일 오후 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모녀를 성폭행 하려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12일 전자발찌를 차고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2)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이차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모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술을 마신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목쓸짓을 시도했다.

C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린 뒤 A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1층으로 내려가 남성 거주자들에게 사건을 알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을 받기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는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느냐, ‘모녀의 집을 노린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의혹...경찰 수사

광주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광산구 모 유치원에서 교사 A(36·여)씨가 원생 B(5·여)양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 어머니는 귀가한 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유치원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경찰에 “A씨가 B양의 등을 때렸다. 학대 정황을 밝혀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유치원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학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